

[해녀노래 예능보유자 김영자씨] “소리 내뱉고 나면 고달픈 삶도 잊어”

등록 : 2005년 08월 07일 (일) 19:21:56
최종수정 : 년 월 일 (월)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이여싸나~ 이여싸나~”하고 소리를 내뱉고 나면 노 젓느라 힘들었던 일도, 사느라 고달팠던 일도 다 잊을 수 있었지”

해녀노래 예능보유자인 김영자씨(67)는 아직도 ‘물질’을 한다. 한창때 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태왁을 매고 바다로 나서는 일이 자연스럽다.

해녀노래는 지난 1971년 8월 제주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됐다. 당시 정순덕씨에 이어 지난해 5월 별세한 안도인씨로 명맥을 이어오던 해녀노래는 제주도가 지난 3월 지난 1993년 해녀노래 교육조교로 활동해 온 김씨와 강등자씨(67)를 전승자로 결정하며 또하나의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선창과 후창이 갖춰진 노래인 만큼 두 사람을 예능 보유자로 인정했다는 점은 ‘해녀노래’전승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북군 구좌읍 행원리에 살고 있는 두 사람 중 강씨는 병원 입원 중으로 만날 수 없었지만 같은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친구인 김씨에게서 ‘해녀노래’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녀노래는 육지에서 떨어진 바다 밭으로 물질을 하러 갈 때 부르던 노래. 노를 저으며 주고 받는 노동 요이기도 했지만 잠녀들에게는 세상사를 풀어내는 ‘살풀이’와 같다.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해서 살림살이도 좀 펴고, 이 힘든 일을 그만해도 되나 하는게 가사의 전부”라며 “숨비소리가 오래 참고 있던 숨을 뿜어 내며 큰 한숨을 쉰다는 느낌이라면, 해녀노래는 스트레스를 푸는 의미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씨는 또 “불턱에서는 젖은 몸을 말리느라 그랬는지 특별히 부르는 노래가 없었다”며 “불턱에서건 배에서건 쏟아낸 말은 다른데 전하거나 다시 끄집어 내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지켜져 왔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김씨가 그려왔던 것처럼 지금 30대와 40대 잠녀 2명이 해녀노래를 배우고 있다.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도 해녀노래에 관심을 갖고 제법 소리를 한다고 자랑이다.

김씨는 “처음 어머니에게 물질을 배웠을 때처럼 해녀노래도 그저 바다에 따라가서 귀동냥으로 들었고 문몸으로 익힌 것이 전부”라며 “필요하다면 한겨울에도 옷을 챙겨입고 바다에 나서고, 어느 자리에서건 소리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